

인간의 오랜 친구 개

충직과 의리 상징

▶ 전주역사박물관 특별전 개와 인간의 시간

개는 선사시대부터 사람과 가장 가까워서 친근하게 생활했던 동물로, 돼지·양·소 등보다 먼저 사람이 길들인 최초의 가축이다. 때문에 개는 인간의 가장 오랜 친구로 여긴다.

우리나라에서 개 뼈가 발견된 대표적인 유적은 신석기시대 부산 동삼동 패총으로 완전한 형태의 개 머리뼈가 나왔다. 개에 대한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삼국지위지동이전에 실린 부여 관직으로 말, 소, 돼지 명을 붙인 마가, 우가, 저가와 함께 개를 붙인 구가가 나온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개가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2018년은 무술년(戊戌年), 개의 해다. 특히, 올해는 60년만에 맞는 '황금개띠의 해'라고 한다. 이는 60간지의 10간 가운데 무는 황금색을, 술은 개를 뜻하기 때문이다.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은 2018 무술년 개띠 해를 맞아 '개와 인간의 시간' 특별전을 마련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 유물을 통해 인간의 동반자로 자리한 개의 상징과 의미를 살펴

오수의견 설화 등 구성

60여점 유물 선보여

잡귀를 막고 복 부르는 이유로
대문에 붙이는 문배도에 등장



홍덕왕릉 십이지탁본



오동나무 아래 달을 보고 찾는 개

는 지리다. '십이지와 개' '충직과 의리의 상징, 개' '오수의견 설화' '우리생활속의 개' 등으로 구성된 60여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전시유물들은 서울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일원 10여개 박물관에서 대여한 것들이다. 십이지신상을 대표하는 김유신묘와 홍덕왕릉의 십신(개상) 탁본, 십이지신이 새겨진 다양한 형태의 해시계 5점과 윤도(방위 측정기) 6점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개는 십이지 중 열한 번째 지킴이다. 시간은 술시로 오후 7시에서 9시, 방향으로는 서북서, 달로는 9월, 음양은 양, 오행은 금에 해당한다. 술시는 하루 중 양의 기운이 끝나는 시간이므로 양기가 가장 지극한 때이다. 그래서 개는 양기가 왕성한 동물로 여겨진다.

충직과 의리로 상징되는 개.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과 같이 살면서 헌신하는 충복으로 역할을 다해 이런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개는 또 이승과 저승을 매개하는 동물로 망자의 저승길을 안내하고 주검을 지키는 의미도 지닌다. 잡귀를 막고 복을 부르는 이유로 닭, 용, 호랑이와 같이 때문에 붙이는 문배도에 종종 등장한다.

오동폐월도, 삼목구, 백동자도 등 민화그림도 여러 점 전시된다. 집을 지키는 것을 상징하는 '오동폐월도'는 개가 오동나무 아래에서 달을 쳐다보고 찾는 모습을 담았다.

삼목구는 눈이 셋 달린 개로 불교에서 삼목대왕이 개로 환생한 것을, 10폭 병풍의 백동자도는 부귀한 저택의 정원 등을 배경으로 어린 동자들이 개와 함께 어울려 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

또한 오수의견 설화를 담은 최초의 기록인 고려시대 최자의 '보한집'과 '오수의견비 탁본'도 함께 전시된다. 임실 원동산 오수의견비는 전북도민속자료로 제1호 지정돼 있다. 이 탁본에는 마치 개가 등을 아래로 하고 누워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이채롭다.

전시에선 개띠 해와 관련된 역사와 사회상도 엿볼 수 있다. 개띠 인물로는 양녕대군(1394년생), 성삼문(1418년생), 영조(1694년생), 여운형(1886년생) 등이 있다. 16대 대통령 노무현(1946년생)과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1910년생) 등도 개띠이다.

국의 인물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중국 송대의 주자, 인도의 테레사 수녀,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등이 개띠이다.

무술년의 역사적 사건은 발해건국(688년), 이순신이 전사한 노량해전(1598년)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관장은 애견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인간의 가장 오랜 친구로 이런 반려자가 된 개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무술년 한 해 즐겁고 복된 나날이 되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특별전은 2월 25일까지. /정해은 기자

“지역 여성계와 소통하는데 힘 기울일 것”

이윤애 신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취임

이윤애 전 전북해바라기센터 부소장(사진)이 1일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제6대 센터장으로 취임했다.



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1990년 여성의 전파로 사회활동을 시작해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윤애 센터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여성계와 소통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며 "센터는 여성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만들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

/정해은 기자



전북도립미술관의 학예연구사 인턴십 기획전 '상생'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

도립미술관 학예사 인턴십 기획전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미술기획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모를 거쳐 인턴 큐레이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채연석·이보미·김효원·서고은 등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학예연구사들의 지도 아래 전시, 교육, 수집, 연구 등 미술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실습을 진행했다.

이들은 그동안 현장 경험을 토대로 기획한 '상생'전을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전시는 '예술'로 상생과 공존을 의미하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인간과 자연·동물 혹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조화로운 상생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생(相生)은 음양오행설에서 금(金)은 수(水)와, 수는 목(木)과, 목은 화(火)와, 화는 토(土)와, 토는 금과 조화를 이룸을 이르는 말로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을 뜻한다.

인간과 자연, 동양과 서양, 종교와 종교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생은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혀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데 급급한 현대인들이 되새길 만한 경구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물질이 풍요워진 반면, 인간은 점차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은 공허해진다. 사람들은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동물을 기르거나 식물을 가꾼다.

전시는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이 인간의 즐거움과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쉽게 취하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상생'에 주목한다.

전시에는 김성수, 김성욱, 김관목, 문민, 송경민, 엄수현, 유시라, 이일순 작가가 초대됐다. 이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공존,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자연과 생태계의 공존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정해은 기자

하이트진로

2018
새해에도 더 맛있게
EXTRA COLD

ICE POINT FILTRATION SYSTEM

광고: 지나친 음주는 비알콜·기억손상·기력손상·기혈순환장애·임신중주는 기형아 출생위험을 높입니다.